

HONG KONG LINER



존 리 홍콩 행정수반 당선인(사진 중앙), 홍콩 6대 행정수반 선거 당선 직후

행정수반 당선인, 새로운 통합의 시대 선언

지난 5월 8일 제6대 행정수반 선거에서 존 리 전 정무총리가 당선되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존 리 행정수반 당선인은 홍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희망과 기회, 조화가 넘치며 배려있고 개방적이며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리 당선인은 “올해는 홍콩특별행정구(HKSAR)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국양제’,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 고도의 자치 원칙의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확고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국양제’ 하에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과 더불어 리 당선인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이 제공하는 기회와 급속한 국가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 당선인은 포용, 다양성 및 개방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대도시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적 연결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우호적인/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와 국가(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가교로서의 홍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당선인은 2017년 보안국장에 임명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정무총리를 역임하였다.

홍콩, 세계금융센터지수 3위 유지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31호 보고서에서 3위를 고수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과 강점을 재확인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본, 인프라, 위상 및 일반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경쟁력 부문에서 홍콩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였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 금융시장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체제 및 체계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잘 확립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외환보유고 비중을 기반으로 둔 연계환율제(페그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본 흐름의 징후 없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이와 동시에, ‘일국양제’ 하에서의 제도적 이점, 법치주의, 시장 중심적이고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등 홍콩이 가진 고유한 강점이 강력한 인프라 자원, 국제시장에 걸맞은 규제체제,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결합되어 홍콩은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는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고

있다. 보고서는 119개 금융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뉴욕이 1위를 차지하였고 런던, 홍콩, 상하이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의 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

IMF, 홍콩의 강력한 경제 회복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발간된 결과보고서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춘 금융 시스템, 탄탄한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강력한 규제 감독 체제를 갖춘 주요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IMF는 홍콩의 금융 부문이 팬데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홍콩은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홍콩 정부가 지속적으로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또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콩, 5월부터 비거주자 입경 재개

5월 1일부터 해외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비거주자의 입경이 허용되고 있다. 홍콩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탑승,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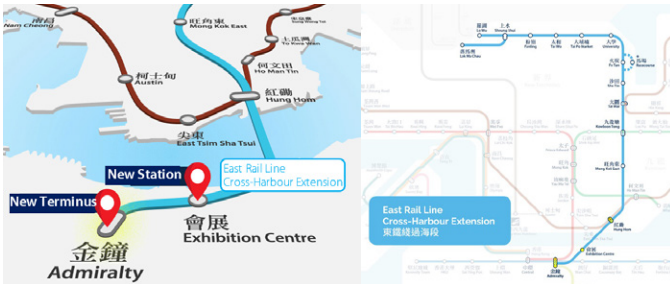
해외(대한민국 포함)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경자에 대한 격리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고, 이후 7일간의 자체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탑승 48시간 이내 PCR 기반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와 홍콩 내 격리 지정 호텔에서 최소 7박 동안의 예약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해외입경자는 홍콩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검사 및 대기(Tes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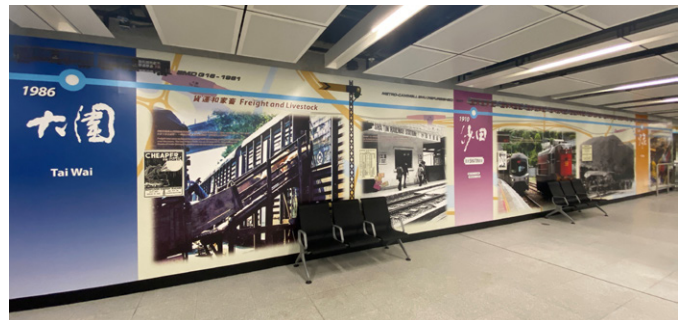
hold)’ 조치 대상이 되며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공항에서 PCR 테스트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격리 지정 호텔로 이동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 중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매일 실시하며, 5일째에는 PCR 검사를 받게 된다. 5일째 PCR 검사 결과와 6일째, 7일째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 지정 호텔에서 조기 퇴소가 허용된다.

탑승, 격리 및 검사 요건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이스트 레일선(East Rail) 연장노선 및 전시장역(Exhibition Centre Station) 개통



애드미럴티역은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하였다.



홍콩섬까지 철도 연장의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중요한 역사적 순간과 이스트 레일선(East Rail Line)의 발전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신설된 전시장역 승강장에서 전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홍콩 MTR 이스트 레일선 해저 연장노선이 개통되어 운행을 시작했다. 개통된 연장 구간으로 이스트 레일선은 홍콩에서 4번째로 해저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이 되었으며, 북동 신계 지역과 센트럴 카우링, 그리고 홍콩섬을 연결한다.

홍합역과 애드미럴티역이 신설된 전시장역(Exhibition Centre Station)을 통해 연결되면서 두 역간의 지하철 이동시간이 19분에서 7분으로 단축되었다. 애드미럴티역은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M+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구룡 반도의 서쪽 바닷가 40헥타르의 면적에 조성된 서구 문화지구인 M+는 세계 최대의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보존지구 중 하나로, 홍콩을 아시아 최고의 예술 및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곳입니다. 숨 막히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사계절 중국 전통 오페라의 본거지인 시취센터,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현대 미술관인 M+, 베이징 자금성의 보물을 소장하게 될 홍콩공국박물관 (2022년 개관) 등이 있습니다. 자연거 타기 좋은 산책로,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실내외의 공연장 등 예술과 문화,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의 역동적인 어우러짐은 살기 좋은 가족 친화적 도시 홍콩에 새로운 차원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HK

자본이 모이고, 가족이 생기고, 가슴이 뛰는 곳.
홍콩, 기회의 세계

HONG KONG
ASIA'S WORLD CITY



brandhk.gov.hk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홍콩의 소중한 전통과 독특한 문화, 도시 경관 및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홍콩 예술가들이 만든 40여개의 미니어처 모델

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미니어처를 통해 홍콩의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홍콩 사람들의 긍정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이 만나 조화를 이루고 창의성이 풍부한 홍콩의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기간

2022년
9월 24일(토)부터
10월 3일(월)까지

장소

서울 코엑스

주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비고

무료 전시

6월 홍콩 센트럴마켓에서 미니어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중 많은 전시작품들이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서울 전시회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주요 하이라이트 작품은 다음 이미지를 참고 -

빅토리아 하버 모형축척: 1:750 / 아티스트: 潘麗瓊(문라이킹), 張勁松(정경송), Act Plus Education Foundation팀



주요 하이라이트 작품 중 하나인 〈빅토리아 하버〉는 올해 6월 홍콩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유만 스퀘어 모형축척: 1:76 / 아티스트: 蔡璧龍(초이백령), 何國添(호국팀), 陳鴻輝(찬홍파이)



이 작품은 군통의 중심부를 조명하고 있다. 밝은 네온사인, 깜빡이는 신호등, 동네 상점, 노점상, 계단 상점가 등 놀랍도록 섬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다.

대나무 경극장 모형축척: 1:35 / 아티스트: 何國添(호국팀)



대나무 경극장은 맹란절(Yue Lan Festival) 등 전통 축제 및 행사 기간 동안 마을, 변화가 혹은 축구경기장에 세워지는 임시 중국 경극장이다. 아티스트는 1,000개가 넘는 전구를 일일이 장식하고 대형 화판(花板)을 손수 만들어서 활기찬 분위기와 전통적인 장인정신을 강조하였다.

타이오의 수상가옥 모형축척: 1:76 / 아티스트: 陳鴻輝(찬홍파이)



타이오는 '홍콩의 베니스'라고 알려진 어촌이다. 타이오는 맛있는 새우장과 해산물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수상가옥들은 바닷가 옆에 지어지며 나무나 돌로 지지된다.

티 하우스 모형축척: 1:43 / 아티스트: 陳鴻輝(찬홍파이)



티 하우스는 1850년대부터 홍콩에 등장했으며, 보통 상점 앞쪽을 포함하여 연립건물 전체를 차지한다. 손님들은 애완조를 데려와 새장을 창문에 걸어두곤 하였다.

SPOTLIGHT HONG KONG

‘홍콩: 여기와 그 너머(Hong Kong: Here and Beyond)’ 전시회가 2022년 11월까지 서구룡 문화지구에 위치한 M+ 뮤지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에 걸친 홍콩의 변화 과정을 담아내고 있으며, ‘여

기, 정체성, 장소, 그리고 그 너머(Here, Identities, Places, and Beyond)’ 등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관점으로 시각 문화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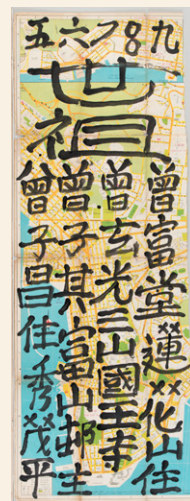
M+ 뮤지엄 메인 홀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홍콩: 여기와 그 너머’ 전시회
사진: 록 쉐, M+ 뮤지엄
Courtesy of M+, Hong Kong



마이클 울프(Michael Wolf)
〈밀도의 건축(Architecture of Density) #8b〉, 2005
크로모제닉 프린트
홍콩 M+ 뮤지엄
© Michael Wolf Estate

마이클 울프가 담아낸 홍콩 도시의 풍경 사진은 추상적인 패턴, 형태 및 반복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다. 〈밀도의 건축〉시리즈에서 울프는 고층의 주거 및 사무실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에도 주목하고 있다. 구룡에 위치한 초이훙 아파트(Choi Hung Estate)를 찍은 사진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특히 ‘무지개’를 의미하는 중국어 이름을 반영하듯 아파트 건물의 다채로운 외관을 담아낸 작품으로 유명하다.

1950년대부터 거의 50년 동안 창 초우 초이는 벽, 우체통, 기둥, 공공 주택 등 홍콩의 공공장소 곳곳에 그린 독특한 서예 작품에 ‘구룡의 왕’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다. 창 초우 초이의 서예작품은 어떤 계통이나 학파에도 얽매지 않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창작 작품이다.



창 초우 초이(Tsang Tsou-choi) (King of Kowloon)
구룡 지도(Map of Kowloon)
인쇄된 종이에 잉크
홍콩 M+뮤지엄

© Tsang Tsou-choi / King of Kowloon